

## ‘수능 D-100일’ 코로나도 폭염도 꺾지 못한 학부모의 간절함

광주 서구 무각사에서 학부모들 학업 성취 기도 이어져  
 “무덥고 힘든 날씨 뚫고 꼭 자녀의 마음에 닿길 바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9일 오전 광주 서구 무각사 대적광전. 코로나19 재유행과 짝퉁더위 속에서도 수험생 자녀들의 학업 성취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기도가 이어졌다.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목탁 소리와 함께 불상을 향해 일렬로 서있던 학부모 8명이 세 번 절을 올렸다.

절을 마친 학부모들은 자리에 앉아 가부좌를 튼 뒤 양 손을 모아 촛등에 가져다 뒀다. 이들은 법문을 함께 낭독하는가 하면 기도 자세를 풀고 명상에 잠기기도 했다.

폭염 속 기도가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오랜 시간 튼 가부

좌가 불편한 듯 일부 학부모는 잠시 자세를 고치며 굳었던 다리를 풀기도 했다.

이날 모인 학부모들은 수험생 자녀의 간절함을 함께 하고 싶어 몸소 응원 기도에도 나섰다

배여정(55·여)씨는 “간절함을 함께 하지 못해 아들이 재수를 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하기도 했다”며 “올 초 강원도 한 기숙 학원으로 보낸 아들이 격정이다. 엄마의 기도가 무덥고 힘든 날씨를 뚫고 꼭 아들의 마음에 닿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숙(49·여)씨는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첫째 딸을 위해 올 초부터 자주 무각사에 와

기도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도 이전보다 나아진 듯 해 법당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도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딸의 좋은 성적을 바라며 응원하는 마음이 어떤 형태로든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간절함을 드러냈다.

한경숙(52·여)씨는 “첫째를 대학에 보내고 둘째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 3년 만에 다시 수능 기도를 하게 됐다. 2019년에는 법당이 폐북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준 것 같다”며 “인생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많이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남은 100일 동안 좀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자녀를 응원했다.

무각사는 오는 10일부터 수능날인 11월 17일까지 신청자 40여 명과 함께 ‘수험생을 위한 기도’ 행사를 펼친다.

김재환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0일을 앞둔 9일 오전 광주 서구 무각사에서 열린 학업 성취 기도에 참여한 한 학부모가 불상을 향해 허리를 숙이고 있다.

### 광주·전남 일일 8000명대 넘어서...휴가철 이후 최대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재확산 양상이 뚜렷한 광주·전남에서 일일 확진자가 8000명 대를 넘어섰다.

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3461명·전남 5016명으로 총 8477명이다. 광주와 전남에선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6월 300~800명 대를 유지했지만 휴가철인 7월 말부터 4000~5000명 대로 급증했다.

이달 들어 확진자는 지난 1일 5780명, 2일 7188명, 3일 6575명, 4일 7281명, 5일 6436명, 6일 6703명, 7일 4042명 등을 기록하고 있다.

전남 광주에선 확진자 3명이 숨졌다. 전남에서도 확진자 1명이 숨졌다. 위중증 환자는 광주 5명, 전남 19명으로 집계됐다.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선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감염 확산세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기동취재본부

### ‘수요 못 따라간다’ 광주·전남경찰 포렌식 역량 강화 시급

2017년 이후 5년간 포렌식 분석 2배 이상 급증세  
 지방청 전담부서 각 7명...장비 보강에도 ‘역부족’  
 “중요성·효율성 고려해 인력·장비 제때 확충해야”

IT기기 사용 보편화 추세 속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전자법의학 수사) 수요가 해마다 늘고 있다.

더욱이 보안 기술 고도화로 기기 1건 당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일선 경찰의 포렌식 인력·장비도 제 때 맞춰 확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 분석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디지털 포렌식 업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은 각종 디지털 데이터·통화 기록, 전자우편 접속 기록 등 디지털 매체 정보를 수집·분석, 실제 규명에 쓰일 증거를 확보 또는 복원하는 수사 기법을 가리킨다.

광주경찰의 경우 ▲2017년 353건(대상 매체 932개) ▲2018년 466건(1342개) ▲2019년 710건(2247개) ▲2020년 986건(2142개) ▲2021년 1010건(2530개) 등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일선 수사 부서에서 의뢰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461건을 수행했다. 스마트폰·PC(태블릿 포함)·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 분석 매체만 1338개에 이른다.

전남경찰도 2017년 648건(1285개)에 불과했던 포렌식 분석 수요가 2018년 708건(1667개), 2019년 740건(1849개), 2020년 811건(2220개), 지난해 1019건(2715개)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 상반기에도 466건(매체 1062개)의 분석을 마쳤다.

분석 건수만 기준으로 했을 때 광주와 전남 모두 5년 사이 2~3배 가량 늘었다.

이처럼 분석 수요가 늘면서 지난 2018년부터 지방경찰청 단위에 전담 조직(경정급-계)이 꾸려졌다. 현재는 광주와 전남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는 7명씩 근무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 분석용 서버, 현장 증거 획득도 구 등 장비도 수시로 보강되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기는 벅하다. 특히 전원 단자 고장 또는 파손·침수 기기 등을 분석할 장비가 없어 경찰 분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해야 한다.

스마트폰 잠금 장치 해제 장비는 전국 권역 단위로만 보급, 광주청이 보유한 1대가 전남·전북 권역 내 분석 의뢰 수요까지 감당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일선 수사 부서는 애가 탄다.

한 수사관은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 등 IT기기에 남겨진 여러 흔적이 각종 사건·사고의 실체를 규명할 중요 증거가 되는 시대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 의뢰는 급증하고 있지만, 인력과 인프라가 충분한 지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한 수사 부서장은 “포렌식 수요가 늘면서 순서가 늘 밀려있다. 유의미한 결과를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 관련 장비가 없어 분석까지 보내야 하는 경우,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했다.

더욱이 IT·보안 기술 고도화로 매체 1대 당 분석 시간도 길어지고 있어, 인력·장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디지털포렌식 부서 관계자는 “장비가 수시로 교체되거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IT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빠르다. 과거보다 스마트폰, IT서버의 보안 잠금 해체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저장 용량도 훨씬 커져 복원 또는 분석 대상 자체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석관 1명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나뉘어 늘고 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지방청 단위 전담 인력 정원을 확대하고 분석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